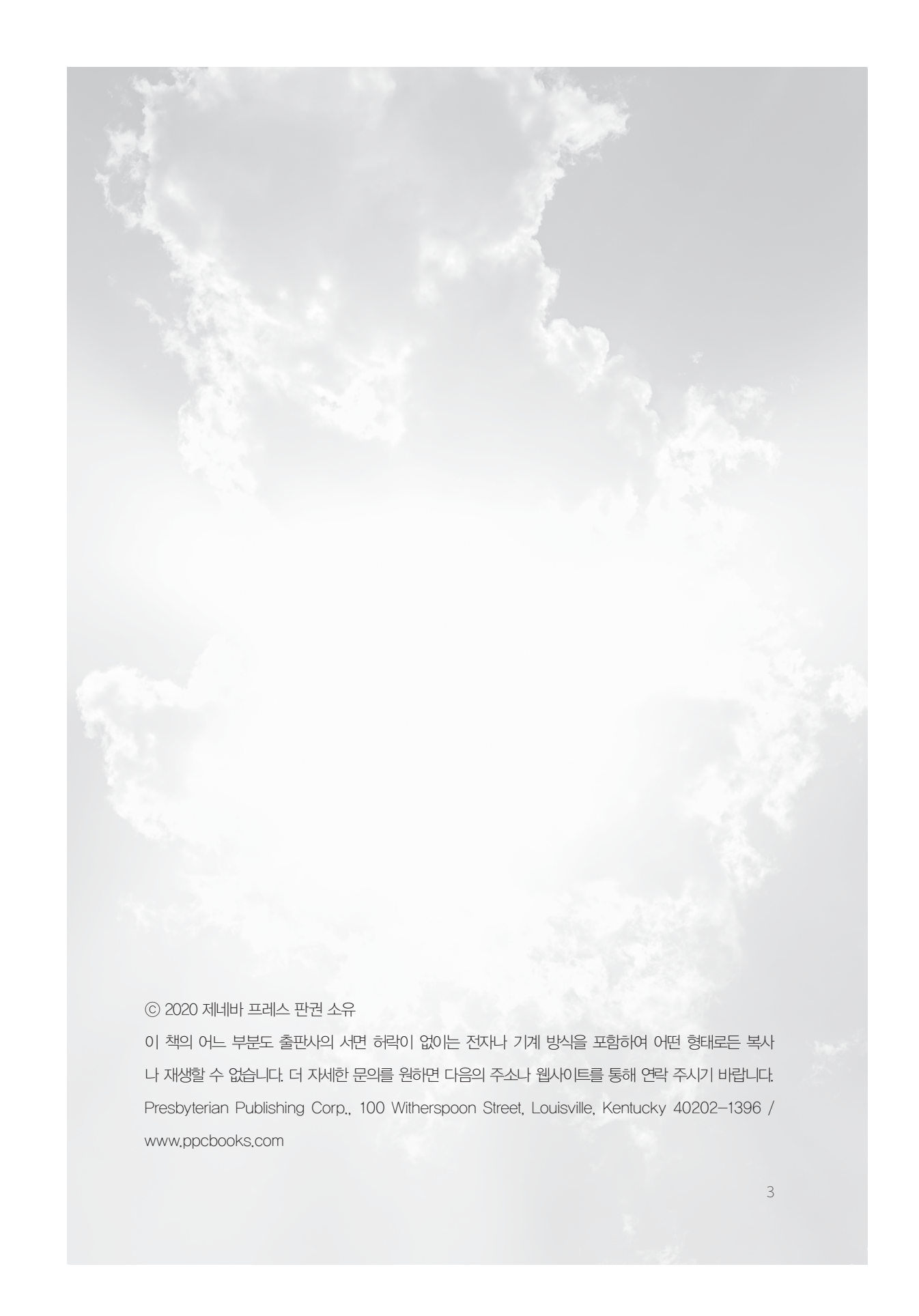


스가랴

여호와와의 날을 준비하라

조은성 목사 지음



© 2020 제네바 프레스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나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
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조은성 목사(시카고연합장로교회)

감수자 고훈 목사(뉴욕하은교회), 한만식 목사(유타한인장로교회)

차례

편집자 노트 / 5

활용법 / 6

총론 / 8

제 1 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1
제 2 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15
제 3 과	제사장직이 회복될 것이다	19
제 4 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3
제 5 과	심판자 하나님	27
제 6 과	왕 같은 제사장을 향한 비전	31
제 7 과	참된 금식	35
제 8 과	사랑하기 때문에	39
제 9 과	겸손 vs 교만	43
제10과	밝은 미래를 꿈꾸라	47
제11과	선한 목자 vs 악한 목자	51
제12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55
제13과	여호와의 날	59

폴란드의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Those who does not remember history is bound to live it through again)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사 속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끔찍한 일을 기억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바로 잡지 않으면 그와 유사한 끔찍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용구로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함으로 과거의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복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약 70년이 흐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그들의 일상엔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죄악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또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여러 환상들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스가랴서는 현대 교회들이 꼭 읽고 묵상하고 이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악된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킹덤 라이프 : 스가랴서”가 개별 그리스도인들 및 전체 교회의 죄악된 역사를 끊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힘써 주신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 조은성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나눔식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이다.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말씀 깨닫기

-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플롯으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 3) 인도자 교재에는 관찰 질문들에 이어 해석 질문 및 본문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질문들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추가 질문들은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변화의 시작인 생각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가 질문들은 인도자가 모임을 강의나 교수식이 아니라, 나눔식으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 따라 살기

-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해도 좋다.

B.C.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렘 29 : 10)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다(B.C. 605년에 있었던 1차 포로 이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귀환 후 2년 만에(B.C. 536년)에 성전 재건의 기초공사를 마친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자신들도 동참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귀환자들이 볼 때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스 4 : 3). 그러자 유대의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곽을 건축하는 것은 바사를 배반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짓 상소를 바사 왕에게 올린다. 그들은 또한 관리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마침내 왕은 조서를 내려 공사를 중지시키기에 이른다(스 4 : 5-6, 21). 그후 약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만다(B.C. 520년까지).

16년 후, 다리오가 바사의 왕이 되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B.C. 521년). 하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는 아직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신다(학 1 : 8).

하나님은 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스 1 : 3), 이스라엘은 돌아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증거이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고, 동시에 교회의 온전

Kingdom Life

총론

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1-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성전 재건과 금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9-14장)는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전반부의 핵심인 여덟 가지 환상들은 이제 겨우 재개된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는 중단되는 일 없이 준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다. 이 여덟 가지 환상들은 성전 재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선민들이 명심해야 할 여러 교훈들, 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 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약적 축복 및 종말론적 축복까지를 제시해 준다. 그리하여 당시의 포로 귀환 세대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다.

한편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후반부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세상 끝날의 결정적인 구속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민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막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위축되어 있고, 일시적 안일과 세속적 이익을 쫓아 다니면서 다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할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종말론적 미래의 비전을 보여 주시므로써 현실을 뛰어넘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근본적 힘을 주고 계신다.

B I B L E
매일 성경 읽기

월요일 학개 1 : 8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화요일 학개 1 : 9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무엇에 열심을 내었습니까?

수요일 스가랴 1 : 1

스가랴 선지자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목요일 스가랴 1 : 2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금요일 스가랴 1 : 3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토요일 스가랴 1 : 4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일 스가랴 1 : 4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였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의 말씀

스가랴 1 : 1~6

찬송

531장(통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기도

인도자 혹은 자원자





마음 열기

자신의 습관들 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되는 습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본문을 다 함께 읽은 후에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절에 유의하면서 경청합니다.

— 배경설명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다. B.C. 538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가 심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장애에 부딪히자 그 목적을 잊은 채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던 중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B.C. 520년) 6월 1일에 선지자 학개가 등장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학 1장 참조).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는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명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된다.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가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사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에서는 온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 도움말

- 다리오 왕(1절) : 고레스가 명했으나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도록 명한 인물.
- 만군(3절, 히 : 체바오트) : 하늘 혹은 천사 군대를 의미함.
- 만군의 여호와(3절, 히 : 야웨 체바오트) : 이 호칭은 주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등

장하며,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줌으로써 존경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불러 넣어 준다. 스가라서에서 53번이나 사용됨.



말씀 깨닫기

1.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1절)

2.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는 무엇입니까?(2절)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3-4절)

4. 본문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주로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3-4, 6절)



말씀 따라 살기

1.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좁히기 위해 한 주간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독특한 혹은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 소그룹이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

B I B L E
매일 성경 읽기

월요일 스가랴 1 : 10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과 말들은 무엇을 위한 존재들입니까?

화요일 스가랴 1 : 16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수요일 스가랴 1 : 17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결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목요일 스가랴 1 : 18~21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요일 스가랴 2 : 4~5

예루살렘은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까?

토요일 스가랴 2 : 8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곧 무엇을 범하는 것이 됩니까?

주 일 스가랴 2 : 10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